

VOL. 12

2023 | 가을

# 충북학누리



충주 원평리 미륵\_소설가 홍구범이 '미륵 잇는 마을'로 소개한 고향의 상징물이다.

# 충북학누리

Vol.12 | 2023 가을

## CONTENTS

- |           |   |           |           |   |                        |
|-----------|---|-----------|-----------|---|------------------------|
| <b>01</b> | <b>충북의 문장</b><br>문학인과 노예근성<br>홍구범                                   | <b>3</b>  | <b>04</b> | <b>충북 역사 기행</b><br>1300년 전 청주 사람들은<br>어떻게 살았을까<br>조혁연 | <b>31</b>              |
| <b>02</b> | <b>한시로 만나는 충북의 문화 공간</b><br>물결의 섬에서 깨닫다,<br>진천 식파정(息波亭)<br>김용남      | <b>6</b>  | <b>05</b> | <b>충북 문화예술 여행</b><br>안승각, 충북 현대미술의 징검다리<br>김기현        | <b>40</b>              |
| <b>03</b> | <b>오늘을 비추는 역사 속 인물</b><br>한계를 뛰어넘어 실력으로 인정받은<br>세계적 작곡가, 박영희<br>유영선 | <b>17</b> | <b>06</b> | <b>충북학연구소 소식</b><br>『충북학』 원고 모집                       | <b>49</b><br><b>50</b> |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발간 총괄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

기획·편집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정 민 (충북학연구소 위촉연구원)

통권 12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3. 10. 04.

# 문학인과 노예근성

홍구범

1945년을 기하여 문단도 다른 부문과 함께 일대 전환을 이루었다. 이 전환은 역시 개괄적인 두 가지 과제가 중심이 되어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과거 청산과 새로운 건설에 대한 임무 실천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진전은 도리어 현재까지의 결과에 있어 완전한 실패였다. 첫째 집단적 존재인 문단까지 붕괴된 상태로 조선문학 신건설에 이 이상 더 위기는 없을 만큼 암담 그대로의 연속이었다. 전년 팔월 해방 즉시 그들 문단인에게는 수많은 사명과 과제가 부여되었던 것이다.

첫째 작가로서의 반성, 특히 부일문학인(附日文學人)의 조치 등이 포함, 이전 작품에 대한 비판 또는 문학 재건에 이바지할 각오, 문단의 강화책 등등의 허다한 문제는 일조(一朝)에 난립 대두한 반면 그의 실패도 단시간에 완결짓고 말았다. 이것은 순전한 역행(逆行)이었다.

물론 이 중대 원인은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부하(負荷)하고 나온 해방 전 문학인들의 과거 일정(日政)의 피압(被壓)으로 말미암은 무지무능의 잔재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때문이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보다 더욱 각자에게 부과된 임무 수행의 첫 단계인 냉정한 자아비판이 몰각된 데에 기인의 초점을 밝힐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능력의 유무는 벌써 제2의 원인으로 그들에게 작가로서의 양심이 있었는가를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그동안의 경로를 따져볼 때 그들 중에는 문단 영웅으로 자처하는 것, 심지어는 정치 메신저, 부일문학인의 태연작약한 출동, 때로 파괴를 선동 추진시키는 작품을 쓰며 문학의 대중화를 절규하는 것, 또한 그들의 모체라고도 할 수 있는 문단의 다양다종의 분열을 가져온 적대 문화단체의 우후죽순식 난립 등등, 이러한 근본 요소는 무엇보다 양심 상실의 소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해방은 그들 대개에게 맹목적인 자아긍정의 편견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그들은 과거의 지위에서 한 계단, 심지어는 두 계단씩의 승차(昇次)를 보여, 해방 전 한두 작품의 발표로 연치(年齒)를 가진 작가는 어느 틈에 중견이었고, 그때의 확정적인 신인은 벌써 대가로 자처하였다. 물론 작품의 비판정신은 매몰된 지 오래다. 누구나 자기의 작품을 수준 이상의 문제작이란 판정은 그들 두뇌를 병적으로 마비시킨 확연한 대상이었다. 이러한 병균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를 우리들은 소위 과거에 있어 삼십대 작가를 상대로 지위 보존을 꾀하여 항쟁해오던 그때의 이십대 작가 사이에 더욱 많이 볼 수 있다는 것도 조언(造言)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그 심중에도 평론가들에 있어서는 연대별을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작품을 하나 대할 때 그들은 곧잘 정신이상증을 부린다. 태작(駝作)을 수준 이상의 작품이라고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작품으로서의 문제성을 띤 작가를 가져다가는 이 자는 작가로서의 완전한 실격자라는 망언을 삼가지 않는다. 나는 어느 때인가 이에 대해서 어떤 선배에게 그들(평론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은 어떻게 아느냐 물었더니 남의 평가 내린 것을 암송하여 뭐니뭐니 도용해 떠든다는 것이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만은 아니다. 또한 겸손한 일도 만무다. 교만이 그들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들은 선배도 없고 후진도 생각지 않는다. 이에 있어서는 과거의 이십대 작가가 더욱 심하다. 그들이 신인으로 등장할 때 그들의 항쟁의 대상적 작가였던 삼십대 인물들은 그들을 등장시키기에 가진 진력(盡力)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해방은 그들에게 또한 당돌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될 수 있으면 자기의 현재 권리를 신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더욱 누려보려는 야비심(野卑心)이 가득하다.

이에 미증유의 악사태가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의 신세대가 머지않아 닥칠 것을 예기하지 못하는 것만은 유감이다. 문단에도 자유가 올 것만은 사실이다. 후일의 헤게모니는 미개적인 연대의 구별보다도 작가와 작품의 양심적인 향상이 그것을 쥐고야 마는 것이 만대(萬代)가 증명하는 원리인 것이다. 신세대에 입각한 신인 작가들은 그들과 같은 노예적 환경에 놓이지 않은 이상 얼마든지 활달한 발전을 문단에 기여하는 바 클 것이니 그들은 좀 더 양심적이고 냉정한 자아비판의 능력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겸손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47. 7. 6.)

-『大潮』 제 2권 2호, 1947.8. -

**\*편집자 주**

이 글은 소설가 홍구범(洪九範; 1923 ~ ?)이 1947년 8월 1일에 발행된 잡지 『대조(大潮)』 제2권 2호에 발표한 평론이다. 이 글에서 홍구범은 해방 직후 문단 상황을 “미증유의 악사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작가들이 “양심적이고 냉정한 자아비판의 능력을 갖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문을 옮기되 표기와 띄어쓰기를 현대 한글맞춤법에 따랐다.

홍구범은 충주(신니면 원평리) 출신으로 ‘광복기 문단의 화제작 제조기’로 불릴 만큼 해방공간(1947~1950)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소설을 중심에 두고 동화, 수필, 평론까지 장르도 다양했다. 자기 문학세계를 구축하며 펼쳐나가던 중 한국전쟁이 일어나 1950년 8월~9월경에 납북되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에 대한 소식은 조금도 알려진 바가 없다.

올해 2023년은 홍구범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의 삶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애정을 보내며 ‘작가적 양심’으로 꿈을 향해 날아오르려던 한 문학청년을 그려본다. 전쟁으로 무참히 꺾여버린 청년의 날개를 생각한다.

70년 이상 이념의 굴레에 갇혀 있던 그의 삶, 미완으로 남은 그의 문학을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 홍구범 문학비(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 물결의 심에서 깨닫다, 진천 식파정(息波亭)

김용남(충북대 강사)

**사람과 땅이  
서로 얻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백곡저수지 변 나지막한 봉우리에 식파정(息波亭)이 있다. 이 정자는 상산처사(常山處士) 이득곤(李得坤, 1587~?)이 1616년(광해군 8) 두건리 앞 냇가에 지은 것인데, 1983년 백곡저수지 확장으로 마을이 수몰되자 현재 위치로 옮긴 것이다. 애초 식파정이 있었던 두건동(斗建洞)은 도원(桃源)이라 불릴 정도로 풍광이 빼어난 곳이었다. 이득곤은 이곳에 두건당(斗建堂)과 식파정을 짓고 학문에 전심하며 소요하였다.



▲ 식파정



▲ 식파정 전경

예로부터 현인과 군자는 천하 사물에 있어 좋아하는 바가 없다. 오직 산수의 승경과 천석의 아름다움을 좋아할 뿐이다. 좋아하는 것이 지극하면 그것을 구하러 두루 다니는 까닭에 반드시 땅을 얻어 정사(精舍)나 암정(庵亭)을 짓는다. 주자의 무이(武夷) 울곡의 석담(石潭) 우암의 화양(華陽)이 그렇고, 이득곤의 두건(斗建) 또한 그러하다. 한편 사람과 땅이 서로 얻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땅을 보면 가히 그 사람을 알 것이고 그 사람을 보면 또한 가히 그 땅을 알 것이라는 것이다.

이득곤은 양성이씨(陽城李氏) 이시중파(二侍中派)의 파조 이인부(李仁富)의 9세손으로 자는 덕후(德厚)이다. 광해군 때 혼탁한 정쟁을 멀리하고 산림에 은거하여 학문에 정진하며 인근의 여러 학자들과 어울렸다. 사람들은 그를 상산의 참된 처사요 혼탁한 세상의 아름다운 군자라 하였는데, 최명길(崔鳴吉)·채익선(蔡翊先)·채진형(蔡震亨)과 도의로 교제하였다.

이득곤에게 있어 인연의 땅인 두건동은, 중국의 장강 가운데 있는 백로주(白鷺洲)와 장강 삼협(三峽)의 하나로 일컬어진 황우협(黃牛峽)에 양보할 수 없을 만큼 풍광이 빼어난 곳이다. 1671년 청명(淸明)에 정유수(鄭惟壽)가 지은 <금구당 선조의 두건당

서문 뒤에 추가로 쓰다(追題肯構堂先祖斗建堂序後)에 의하면,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가 좌우에 뻗어 서 있고, 벽도(碧桃)와 붉은 살구꽃이 앞뒤로 활짝 피어 있는, 그야말로 무릉도원과 같은 곳이다. 특히 두건동이 갖고 있는 여덟 가지 아름다운 풍광은 백로주나 황우협에는 없는 것으로, ‘봉령의 아침 구름(鳳嶺朝雲), 노성의 저녁 구름(弩城暮雲), 용추의 가랑비(龍湫細雨), 명동의 폭포수(明洞飛泉), 독수리 벼랑의 붉은 노을(鷲崖丹霞), 모래톱의 푸른 물결(沙汀綠波), 나곡의 약초 캐는 노래(蘿谷採歌), 모암의 어부의 피리소리(帽巖漁笛)’가 그것이다.

**두건동에 두건당과 식파정을 짓고 살다**

물가의 새와 숲의 짐승들이 스스로 날고 울며 봄꽃과 가을 잎이 스스로 피고 지는 두건동, 언덕의 지초와 물가의 여뀌가 빛나고 암대(巖臺)와 석탑(石榻)이 기이하고 괴이한 두건동,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가벼운 구름과 담박한 연기가 이르는 두건동은 오랫동안 주인이 없었다. 그런데 무슨 인연인지 이득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힘으로 다룰 수도 없는 이 좋은 경치의 주인이 되어 이곳에 몇 칸 초당을 지었다. 또한 맑은 시냇가에 정자를 지어 사계절 두건동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겨 감상하였다.

이득곤은 이곳 두건당(斗建堂)에서의 삶을 오롯이 즐겼다. 앞 시내에 비치는 달빛에 외로운 소나무 어루만지며 머뭇거렸고, 북창에 맑은 바람 불 때면 좌우의 금서(琴書)를 즐겼다. 꽃 피는 봄에는 술동이에 술을 가득 채웠고, 국화 피는 가을에는 술병을 끌어당겨 자작하였다. 또한 시냇가 모래에 노을이 질 때면 푸른 물결에 낚싯대 드리웠고, 때론 구름을 헤치고 약초를 캐며 한가히 소요하며 시를 읊었다. 이 모든 것이 주인 이득곤의 정취고 취흥이며 유유자적 세상을 잊음이었다.

초당의 깨끗함이 시내의 맑음을 누르니	草堂瀟灑壓溪清
속세와 정을 끊고 두건동에서 고요히 사네.	斗建幽居絕世情
천석에 살갓노라 다짐 둔 참된 즐거움이 있는 곳	川石有盟眞樂所
공명에 뜻이 없으니 다시 무엇을 계획할까.	功名無意更何營
지난 밤비 머금은 복사꽃 붉게 단장하고	桃含宿雨紅粧濕
아침 연기 떨친 버들에 옥대가 가볍구나.	柳拂朝烟玉帶輕
삼라만상이 취한 눈에 들어오니	萬象森羅來醉眼
붓 끝에 시흥이 이는 것을 금할 길 없네.	不禁詩興筆頭生

이강(李崗, 1582~1643)의 작품이다. 이강은 양성이씨 군사공파(郡事公派)의 파조 이수림(李守林)의 8세 손으로 이득곤에게는 일가 어른이 된다. 부친은 음죽현감(陰竹縣監)을 지낸 이정영(李廷英, 1545~1627)이다. 1615년 형 이립(李岌, 1566~1635)과 동방(同榜) 급제하였다. 위 시는 봄날 두건당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이강이 두건당에 들렀다. 초당의 맑고 깨끗함이 시내의 맑음을 압도한다. 이곳에서 공명도 아랑곳없이 옥대(玉帶)를 가볍게 여기며 사는 주인을 만났다. 그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천석에 사는 즐거움을 나누자니 시흥(詩興)이 일어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

계산과 인물이 한가지로 맑아	溪山人物一般清
흔연히 합하니 두 가지가 아름답구나.	端合欣欣兩美情
먼 옛적부터 숨기고 아껴둔 곳 이제 주인 있으니	千古秘慳今有主
백년의 안락에 다시 경영할 것이 없네.	百年安樂更無營
맑은 가을날 누대에 거문고와 노래 소리 평온하고	秋晴臺榭琴歌穩
좋은 봄날 숲의 정자에 발걸음 가볍구나.	春好林亭杖履輕
반쪽 나눠준다면 내 이사하여 살고 싶으나	我欲移居分一半
쇠약하고 병들어 남은 생이 얼마 안 되니 어찌하나.	奈如衰病少餘生

채진형(蔡震亨, 1579~1659)의 작품으로 『순당집(尊堂集)』에 전한다. 채진형은 자가 형지(亨之)이고 호는 순당(尊塘)이며 본관은 평강(平康)이다. 중서문하평장사(中書門下平章事) 채송년(蔡松年)의 아들 채화(蔡華)의 후손으로, 1609년(광해군 1)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광해군의 폭정에 벼슬할 뜻이 없어 진천 몽촌(夢村)에 은거하였다. 제목은 <거듭 차운하다(重次)>로, <이덕후의 계당에서 벽 위의 시에 차운하다(次李德厚溪堂壁上韻)>에 이어 지은 것이다. 오래 전부터 숨기고 아껴둔 두건동의 주인이 된 이득곤이 식파정을 짓고 안락하게 살고 있으니 다시금 경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채진형은 애써 명리를 구하지 않는 이득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 말이다.



중양절에  
식파정에서  
시회를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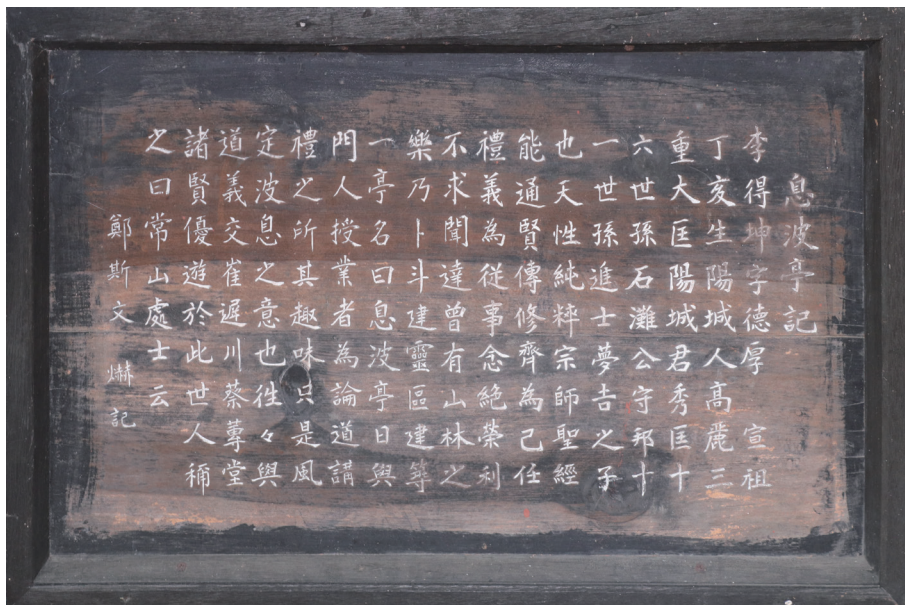


▲ 식파정 현판

일찍이 산림에 즐거움이 있어 두건동에 정자를 짓고 '식파(息波)'라 명명한 이득곤은, 이곳을 도를 논하고 예를 강하는 곳으로 삼으며 자신의 호 또한 '식파정(息波亭)'이라 하였다. 애초 식파정이 들어선 두건동은 무릉도원의 절경을 연상하게 할 만큼 그 경관이 뛰어나 인근의 학자와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고요하고 경치 맑은 별천지에서	別區寥寂景光清
은자의 무르익은 정을 보네.	可見幽人爛熳情
물고기와 새는 이제 오랜 친구가 되었고	魚鳥即今爲故舊
바위 누대는 따로 경영하지 않아도 되네.	巖臺曾不費經營
섬돌 가 붉고 흰 복사꽃 어여쁘네	階邊紅白桃花嫩
취한 속 영락의 세상 일 가볍구나.	醉裡榮枯世事輕
계당에서 모시는 멋진 모임 얼마나 다행인가	何幸溪堂陪勝會
의대에서 광채가 발할 것을 이미 알겠네.	已知衣帶粲輝生

정혁(鄭熾, 1590~?)이 지은 것이다. 정혁은 울봉찰방(栗峯察訪)을 지낸 정봉남(鄭鳳男)의 아들로 호는 긍구당(肯構堂)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정유수의 조부로 당시 진천에 살았다. 1645년 가을, 이득곤은 중양절을 맞아 최명길을 비롯하여 평소 교분을 나누는 이들을 초청해 이곳 두건당 식파정에서 시회를 열기로 계획하고 미리 알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혁은 그날 모임에 함께 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모양이다. 그는 <두건당서(斗建堂序)>와 <식파정기(息波亭記)>를 모두 지을 만큼 누구보다도 이득곤과는 각별한 사이다. 그렇기에 시 한 수로 중구일(重九日)의 멋진 모임을 미리 축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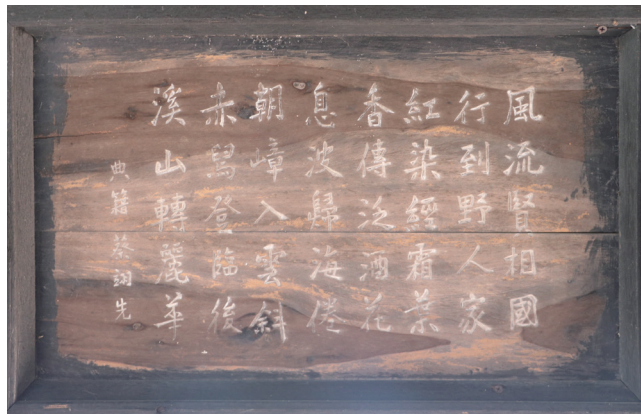


▲ 정혁의 「식파정기(息波亭記)」 편액

마침 중앙절을 맞이하여	趁得重陽節
처사의 집을 찾았네.	來尋處士家
첩첩이 싸인 봉우리에 단풍이 환하고	疊巒明赤葉
기울어진 돌 사이에는 국화로드.	欹石間黃花
그물을 거두니 잡힌 고기 날뛰고	網聚銀鱗急
매가 나니 고운 날개 비끼었네.	鷹翻錦翼斜
가는 길 재촉할 일 없으니	未須催去路
날씨 정녕 화창하구나.	風日正妍和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이 지은 <식파정에 쓰다(題息波亭)>로 『지천집(遲川集)』에 전한다. 최명길은 1642년 영의정에 복직했으나 이듬해인 1643년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심양(瀋陽)에 잡혀가 2년간 억류되었다가 60세인 1645년 2월 소현세자·봉림대군과 함께 풀려나 귀국하였다. 그 후 청주로 돌아와 진천 집에서 지내고 있었기에, 이때 이득곤의 초청을 받고 식파정을 찾은 것이다. 봉우리마다 붉은 단풍이 한창이고 돌 사이에 황국도 아름답다. 마침 이날 날씨가 봄날처럼 따뜻하니 서둘러 가는 길 재촉할 필요도 없다. 마음에 맞는 이곳에서 좀 더 머물고 싶다는 것일 게다. 위 시는 『식파정시문집(息波亭詩文集)』에도 있는데, 시 끝에 “청계 중앙에 최 상국이 계당에 임하여 우연히 읊다(靑鷄重陽, 崔相國來臨溪堂偶吟)” 라고 하였다. 청계(靑雞)는 해의 간지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을유년(乙酉年)을 말하니, 1645년 중앙절에 식파정에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풍류를 즐기는 어진 상국께서	風流賢相國
야인의 집에 행차하셨네.	行到野人家
붉게 물든 것은 서리 맞은 단풍잎이요	紅染經霜葉
향을 전하는 것은 술잔에 떠있는 꽃잎이라.	香傳泛酒花
물결이 쉬었다 가니 바다로 가는 것 더디고	息波歸海倦
아침을 맞은 산봉우리엔 구름이 비끼었구나.	朝嶂入雲斜
붉은 비단 가죽 신 신고 정자에 오르시니	赤舄登臨後
시내와 산이 더욱 화려하다네.	鷄山轉麗華



▲ 채익선의 오언시 편액

채익선(蔡翊先, 1588~1650)의 작품이다. 채익선은 채정(蔡楨)의 후손으로 개명 전 이름은 계선(繼先)이다. 1615년(광해군 7) 문과에 급제 후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을 지냈다. 외조부는 이강의 백부(伯父) 이정수(李廷秀, 1543~1616)로, 채익선의 부친 찰방 채원준(蔡元峻)이 이정수의 맏사위다. 이처럼 진천의 양성이씨와 평강채씨는 혼인으로 더욱 가까웠다. 위 시는 전체적으로 중앙절을 맞아 식파정과 그 주변의 풍광을 그리며, 특히 이날 모임을 더욱 풍성하고 화려하게 해준 최명길의 방문에 큰 의미를 두었다.

짚신 신고 연회에 참석하니	芒鞋參宴集
누가 산촌의 집을 알았으리.	誰識自山家
늦은 절기 그윽한 날에 찾으니	節晚尋幽日
시원한 바람 불고 섬돌엔 꽃이 가득하구나.	風飄滿砌花
홍대 띠고 앉아 자리에 함께 하니	席聯紅帶坐
술잔에 흰 머리 비끼어 비치는데	杯映白頭斜
하늘이 굷은비를 거두니	天遣收陰雨
점점 경치가 화창하네.	漸看景色和

이삼준(李三俊, 1585~1659)이 지은 것이다. 이삼준은 자가 덕부(德孚)이고 본관은 전주(全州)로 청주에 살았다. 1635년 문과 급제 후 참봉과 시정(寺正)에 이어 청주 신흥서원(莘巷書院)의 원장을 역임하였다. 이득윤(李得胤, 1553~1630)의 제자로 최명길과는 같은 스승을 모신 동문이다. 그 또한 이날 식파정을 찾아 두 편의 시를 남겼는데 그 중 두 번째 시로, 시회에 동석하여 어느새 부쩍 늙어버린 벗을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푸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식파,  
명리를 탐하는  
마음을 없애고  
사는 즐거움**

그윽하게 살고자 한적한 곳 가려 지으니  
사람들이 그 옛날 하황공인가 의심하네.  
이제 와 두건동 풍광의 아름다움을 보니  
정녕 도원의 취향과 한가지구나.

卜築幽居靜散中  
人疑千古夏黃公  
今觀斗建風光美  
正與桃源趣味同



▲ 김득신의 칠언시 편액

흰 구름 깊이 잠긴 곳에  
은자의 집이 있네.  
올해도 가을 잎 붉게 물들고  
예전처럼 국화도 노랗게 피었구나.  
맑은 물속에 산 그림자가 비치고  
처마 밖에 실버들 드리운 곳.  
한 곡조 노래 소리에 술을 마시니  
이내 가슴이 화평해지네.

白雲深鎖處  
高築逸民家  
赤梁今秋葉  
黃開舊菊花  
鏡中山影倒  
簷外柳絲斜  
一曲歌樽酒  
胸襟動太和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의 작품이다. 그가 청주 도정당(桃汀堂)에 머물던 1652년 7월, 식파정을 보기 위해 두건동을 찾았을 때 지은 것이다. 이에 앞서 7월 초순, 이득곤은 인편을 통해 김득신에게 식파정의 서문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때 이득곤의 편지 심부름을 한 사람으로부터 식파정의 형승이 목천(木川)의 복구정(伏龜亭)보다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식파정을 찾았다. 첫 번째 시에서는, 말로만 듣던 두건동의 풍광이 과연 도원과 한가지라며, 이곳의 주인 이득곤을 사람들이 하황공(夏黃公)인가 의심한다고 하였다. 하황공은 진나라 말기에 폭정을 피해 상산(商山)에 숨어 살았던 상산사호(商山四皓) 중 한 사람이다. 두 번째 시는, 1645년 중앙일 시회의 운자를 써서, 가을 잎 붉게 물들고 노란 국화 흐드러진 식파정의 모습을 그렸다.

김득신은 식파정에 다녀간 지 1년 후인 1653년 7월 하순에 <식파정의 서문(息波亭序)>을 지어주었다. 서문에서 그는, “정자에 올라 난간에 기대어 보노라니, 문짝까지 드리운 산이며 산굴에서 피어나는 구름이며 무성하게 우거진 귀한 나무며 질푸르게 뻗어선 아름다운 대숲이 눈에 들어왔고, 모래밭 물새 소리와 솔바람 소리도 귀에 들어왔다. 난간 너머 긴 내는 빙 둘러 펼쳐졌는데 너무 맑아서 마치 잘 닦아놓은 거울과 같았으며, 평평하게 흘러서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였다. 그것을 보고 있으니 흐르지 않는 것 같았고 물빛도 움직이지 않아 물결이 쉬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들어보니 소리가 없고 물결이 일지 않아 역시 물결이 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고 하였다. 이렇듯 식파정에 올라 직접 주변을 둘러본 김득신은, 이득곤이 굳이 ‘식파(息波)’로 정자의 이름을 지은 까닭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 명리를 탐하는 마음을 없애고 사는 즐거움을 이 물결의 씩에서 깨닫고 그것을 홀로 즐겨서라는 것이다.

한 굽이 시내와 산이 수려한 곳에

一曲溪山勝

세 칸 처사의 집이 있네.

三間處士家

벼랑에는 붉은 철쭉 가득하고

滿崖紅躑躅

난간 앞에는 벽도화 피었구나.

當檻碧桃花

울타리 곁으로 맑은 물이 흐르고

籬畔清流轉

문 앞에 비스듬히 오솔길이 있는 곳.

門前細逕斜

그대가 한적한 곳의 주인이 되어

知君閑作主

머리 돌려 도성을 비웃는다는 것을 아네.

回首哂東華

채진형의 작품이다. <이덕후의 계당에서 벽 위의 시에 차운하다(李德厚得坤溪堂, 次壁上韻)>로 『순당집(尊堂集)』에 전한다. 벼랑에 핀 붉은 철쭉과 난간 앞의 벽도화, 울타리 곁으로 흐르는 맑은 물과 문 앞으로 난 오솔길 등 마치 그림 같은 식파정의 봄날 풍광을 그렸다. 한편 이 같은 한적한 곳의 주인이 되어 도성을 비웃는 평소 이득근의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동화(東華)’는 송나라 궁성의 동쪽 문 이름이다. 관원들이 조정의 회의에 들어갈 때 이 문을 사용했으므로 조정 또는 도성의 뜻으로 쓰인다. ‘동화를 비웃는다.’는 것은 도성의 변화함이나 그곳에서의 벼슬살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 고을 십리에 있는 특별한 이 정자	吾鄉十里特斯亭
몇 해나 되었냐고 서로 물어 전하네.	自始相傳問幾齡
물은 동강이요 기풍은 울리로	水是桐江風栗里
이 사이 맑은 기운 있어 영지를 얻었구나.	此間淑氣得基靈



▲ 신정희의 칠언시 편액

신정희(申正熙, 1833~1895)의 작품이다. 신정희는 자가 중원(中元)이고 호는 향농(香農)이며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조선후기 무신으로 판중추부사 신현(申暉)의 아들이다. 동강(桐江)은 은자 엄광(嚴光)이 낚시를 하였던 곳이고, 울리(栗里)는 도연명이 은거하던 곳이다. 두건동이 바로 울리요 두건동에 흐르는 물이 동강이라는 것으로, 이득곶이 엄광이나 도연명과 같은 은자의 기상과 풍채로 두건이라는 신령스런 땅을 얻어 살았음을 말한 것이다. 과연 사람과 땅이 서로 얻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인가.

식파정에서 바라 본 백곡저수지 ▼





# 한계를 뛰어넘어 실력으로 인정받은 세계적 작곡가, 박영희

유영선(『동양일보』 주필)

## 이름 앞에 늘 따라붙는 '여성 최초'

박영희.

이름을 듣고 한 번에 그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박 파안 영희(Younghi Pagh-Paan)라고 하면 더욱 낯설어 한다. 그러나 그가 여성 작곡가 최초로 스위스 보스빌 세계 작곡제와 독일 슈투트가르트 작곡 콩쿠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작곡 콩쿠르에서 1등을 휩쓸고, 현존 작곡가들의 '꿈의 무대'라 할 수 있는 도나우에싱겐 현대음악제에서 오케스트라(Orchestra) 곡을 위촉받은 최초의 여성 작곡가이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의 대학에서 여성 최초로 음악대학의 정교수가 되었다고 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 박영희(2018. 『동양일보』 인터뷰)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여성 최초'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1995년엔 동양인 최초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여성예술인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 베를린 예술대상(Großer Kunstpreis Berlin) 수상으로 동 예술상 전 부문에 걸쳐 최초의 '여성' 수상자이자, 최초의 '동양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이미 최고의 작곡가로, 윤이상과 쌍벽을 이루는 작곡가로 정평을 얻고 있는 박영희. 그렇게 한국보다 유럽에서 더 유명한 그가 2021년 11월 잠시 청주를 찾았다.

최양업 신부의 삶을 그린 오페라 「길 위의 천국」 세계 초연을 청주의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였다.

청주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그는 이곳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50년의 외국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다는 그에게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자 자신의 예술적 자양분을 길러준 곳이다.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돼 통합청주시로 출범할 때 박영희는 「청주시민의 노래」를 작곡했고, 청주시는 그에게 통합청주시 1호 명예시민증으로 보답했다. 그의 이력에 또 하나의 최초가 보태진 일이었다.



▲ 2014년 『청주시민의 노래』  
작곡할 때의 박영희



▲ 2021년 오페라 『길 위의 천국』  
리허설

### 한국적 정서를 현대음악에 입혀

2023년 9월 2일 오후. 3회 ‘여권통문의날’(2021년부터 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을 맞아 열린 충청북도양성평등 기념행사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회 ‘여성음악가-있다’가 그것이다. 음악회를 주최한 충북여성재단은 역사적으로 배제된 여성의 창작 활동과 남성 중심의 음악사에서 드러나지 못한 여성음악가를 재조명하고,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 공연 첫머리에 박영희의 곡이 소개됐다. 「노을」이라는 한글로 이름을 붙인 곡이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이뤄진 현악 3중주의 곡을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로 톤을 바꿔 연주한 이날 공연은 노을의 아름다움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현대적인 선율에 녹여내 청중들의 숨을 멎게 했다. 박영희의 곡과 함께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파리음악원 최초의 여교수이자 남녀동일임금 투쟁을 한 루이즈 파랑, 허락된 영역을 넘어선 성악가 폴린 비아르도, 일찍 떠난 천재-오래 살아남은 교육자 릴리 블랑제, 시대를 앞선 마에스트라 파니 멘델스존 등 시대적 한계로 음악사에서 ‘가려진’ 여성음악가와 ‘최초의’ 여성음악가의 이야기와 작품이 소개되었다.

공연에서 소개된 곡 「노을」처럼 박영희는 한국적 정서를 현대음악기법으로 표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그는 그동안 사회참여의 곡부터 인간 본연의 그리움 「모성」을 담은 한(恨) 등 감수성을 그린 곡, 그리고 명상음악과 영성을 바탕으로 한 종교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표현해 왔다. 특히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소리」를 썼고, 반나치 저항조직인 하얀 장미 단원들의 격문과 편지, 최후 변론 등을 「봉화」라는 곡으로 표현했다.

그의 애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가 작곡한 곡의 제목에는 유독 한글이 많다.

“학교 다닐 땐 영어를 배웠는데, 독일 와서는 독일어를 써야 했죠. 그런데 음악 이론과 악보 공부를 하려니까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몇 개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언어는 무엇인가?’ 회의가 일면서 문득 내 나라 언어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큰 한글 사전을 하나 샀지요. 사전을 보면서 한글이 정말 아름다운 언어라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곡에 한글로 제목을 달아 왔어요.”

-동양일보 TV 인터뷰(2021.11.13.)

최근엔 독일서 개최하는 ‘국제 박영희 작곡상’이 세계 음악계에서 화제가 되었다. 음악사상 여성 작곡가의 이름을 딴 작곡상도 드문 일이라서 화제를 모았지만, 공모 조건에 반드시 한국의 전통악기를 1개 이상 넣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외국 작곡가들에게 한국 악기를 알리고 싶은 그의 모국애가 지금까지 없었던 문화교류의 형태로 창조된 것이다.

“이름을 내건다는 게 부끄럽지만 책임감도 커지네요. 1회 작곡상의 주제가 조화와 융합이었어요. 융합이란 익숙함과 낯섬의 어울림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외국인들에게 낯선 악기인 한국 전통악기를 1개 이상 사용하라는 규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한국 악기를 이해하고 그 소리를 알아야 곡을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발간된 한국 전통음악 악기론 서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동양일보 TV 인터뷰(2021.11.13.)



▲ 국제 박영희 작곡상 상패



▲ 2016 국제 박영희 작곡상 수상자 콘서트 포스터



▲ BPW청주클럽 여성음악제 “클라라에서 영희까지” 포스터(2019)



▲ “여성음악가-있다” 포스터(2023)

**꿈의 도전,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밑받침**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그녀의 독특한 음악언어로 세계 음악계에서 ‘여성 최초’라는 이름을 얻은 박영희 작곡가. 그에게 ‘여성 최초’는 어떤 의미인가.

예술의 본거지인 유럽에서도 노래를 짓거나 만드는 일은 주로 남성들의 일이었다. 유럽의 여성들조차 높은 문턱이었던 작곡 콩쿠르에서 한국 여성인 그가 1위를 하고, 작곡가로 명성을 날리기까지는 그의 삶 굵이굵이에 남다른 인고와 노력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에겐 일관된 꿈이 있었다. 청주라는 한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음악의 세계를 접하고, 종이 건반으로 피아노 연습을 하며 독학으로 작곡 공부를 하던 어린 시절부터 음악은 그가 가야 할 길이었고 목표였다. 외국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교류도 쉽지 않던 70년대 초, 과감히 유학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꿈을 향한 도전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믿음은 큰 버팀목이 되었다.

낯선 타국 유학을 불안보다는 신뢰와 믿음으로 지지해 준 가족의 사랑, 특히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그러나 엄마 때문에는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는 이유를 만들지 마라”던 어머니의 말씀은 외롭고 고독한 유학생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공부를 하면서 ‘여성’을 의식하지 않았다. 여성이기에 차별받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여성이라서 특혜를 받는 것도 싫었다. 예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 않다고 믿었다. 그래서 오로지 실력으로 매달렸다. 그런 점에서 ‘박 파안 영희’라는, 유럽에서는 생소한 중성적인 이름이 어찌면 성(性)을 떠나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가 ‘여성 최초’라는 이름을 안겨준 것이다.

### 청주시 남문로1가 182번지의 추억

그는 1945년 10월26일 청주시 남문로1가 182번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박태진과 어머니 김복례 사이에서 9남매 중 8번째로 태어나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았다. 그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어느 곳에서 살아도, 자신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번지수는 잊어버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영희가 태어난 곳’이라며 남문로1가 182번지를 찾아서 사진을 찍는데 지금은 동네 모습이 바뀌어 그가 자라던 옛모습은 아니다.

집 앞길엔 한약재료상들이 몰려 있어서 그 길을 ‘약전골목’이라고 불렀다. 전쟁 후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장날이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는 그때 집 앞길에 앉아 해금을 연주하던 어느 아저씨의 모습이 기억 속에 삽화처럼 남아있다. 그러나 그에게 최초로 음악을 알려준 이는 아버지다.

“제가 살던 곳은 남문로였어요.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듣기를 좋아했지요. 저를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 준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시를 쓰시고, 국악을 좋아하셔서 집에서 늘 통소를 부셨어요. 집 앞 길에 앉아 해금을 연주하던 어느 아저씨 기억도 나고, 여섯 살 때인가 아버지를 따라 무심천변 장터에 가서 판소리를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제 나이 불과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제겐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지요. 아버지께서 저녁식사를 하실 때 제가 노래를 부르곤 하였는데 저는 노래 부를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인터뷰 ‘유영선이 만난 사람’ (동양일보 2018.8.28.)

박영희의 아버지는 교량건설을 하는 건축가였다. 아버지는 일을 나가지 않을 때는 그를 안아주며 항상 노래를 했다. 그의 기억에 아버지는 시를 쓰고 스스로 곡을 붙여 노래를 불렀던 것 같다. 아버지가 온 정신을 집중해서 제도를 하는 펜으로 먹 선(線)을 그릴 때면 그게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서 옆에서 선긋기 놀이를 즐겼는데, 그것이 어쩌면 평생 오선지 악보의 선을 그리는 일로 이어진 것 같다.

그에겐 아픈 기억이 있다. 나이 차가 많은 큰 오빠와 작은 오빠가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나갔는데 다행히 큰오빠는 포로교환 때 돌아왔지만, 작은오빠는 행방불명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오빠들 때문에 상심해 병이 깊어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느라 집을 지켰으나 자식들의 학비 때문에 그 집을 팔고 만다. 집을 사는 이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고, 꼭 여기서 계속 살아서, 어떤 청년이 오면 알려달라고, 그게 내 아들이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것이 청주시 남문로1가 182번지의 마지막 추억이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열일곱 살짜리 소년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평생 가슴앓이를 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을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고 느껴져 한국 사람들의 한(恨)을 음악에 녹여냈다.



▲ 1960년대 청주 약전골목



▲ 종이 건반을 치는 박영희 삽화  
(충북여성재단 “길이 되어 걸어간 여성들” 2021.)

## **‘종이 피아노’를 옆에 끼고 다닌 소녀**

박영희는 인생에서 자신을 음악의 세계로 이끈 사람으로 세 명의 음악 선생님을 꼽는다. 첫 음악선생님은 노래를 지어 부르고 가끔씩 통소도 불던 아버지다. 아버지는 직접 음악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음악적인 영감을 주었다.

두 번째 음악 선생님은 해금 켜는 거리 악사 아저씨다. 그 아저씨는 하루 종일 ‘깡깡이’를 연주했는데, 그 소리가 참 신기하게 들렸다. 무슨 곡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듣다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게도 느껴지면서 이상하게 오래도록 귀에 남았다. 그의 인생에서 악기 연주를 처음 들은 것은 바로 그 거리 악사의 해금 연주였다.

세 번째 음악선생님은 피아노를 가르쳐 준 둘째 언니 박영숙이다. 청주사범학교(현 청주교육대학 전신)에 다니던 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대신 그의 교육을 맡았다. 동화책이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도록 책을 사주었고 피아노를 가르쳐주었다.

“우리 집이 얼마만큼 가난하고 돈이 없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컸어요. 중학교 때서야 비로소 우리 집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둘째 언니 덕에 그때 읽은 책들은 일생동안 저를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어요. 언니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잊게 해주려고, 제가 우울한 사람이 될까봐 제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어요. 난생 처음 만져본 피아노는 제게 새로운 세계였어요.”

“그러나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두꺼운 종이에 피아노와 똑같은 센티미터로 건반을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다녔어요. 짹짹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피아노를 갖고 다닌 것이지요. 옆에 끼고 있다가 어디 가서든 시간이 있으면 짹 펴놓고 그 종이건반 위에서 또 피아노를 쳐요. 소리는 혼자서 다 듣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었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와요.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동양일보 TV 인터뷰(2021.11.13.)

피아노 때문에 잊히지 않는 일이 있다. 청주 중앙국민학교(초등학교) 5~6학년 무렵의 일이다. 종이피아노가 아닌 실제 피아노를 너무나 치고 싶어서 통행금지 시간이 지난 깜깜한 새벽에 혼자서 학교에 갔다. 남문로1가 집에서 중앙국민학교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피아노를 치겠다는 일념으로 어두운 새벽거리를 걸어가서 교문을 타넘어 학교로 갔다. 그리고 여닫이문을 기어 올라가 강당으로 들어가서 해가 뜰 때까지 피아노를 쳤다.

청주, “나의 삶,  
나의 사랑,  
나를 키운 곳”

그는 현재 독일 브레멘시에서 살고 있지만, 늘 지나온 세월을 계산한다.

독일에서 산 세월이 50년이라면, 한국에서 산 세월이 27년이다. 그런데 그 기간 서울에서 산 대학교, 대학원, 조교 시절을 빼면 나머지 20년을 청주에서 살았다. 그는 한 번도 고향 청주를 잊은 적이 없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한다.

“박정국 선생님이셨는데 졸업식이 끝나자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영희야, 너는 커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말을 숙제처럼 안고 살아왔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인가’ 늘 고민이 되었지요. 이 나이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훌륭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중앙국민학교를 졸업한 박영희는 청주여중과 청주여고로 진학한다. 이 시절 박영희는 아버지의 빈자리, 슬픔을 오선지에 그리며 우울하게 보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슬픔을 시로 쓰고, 곡을 붙이면서 그것이 첫 번째 작곡이 되었다.

작곡을 배운 적은 없었다. 라디오에서 들은 음악을 오선지에 그려서 악보를 만들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상관없이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만의 방법대로 표기하고 악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듣기 공부를 혼자서 한 것이다. 독학으로 곡도 지었다. 당시 청주 같은 지방도시에서는 작곡을 가르쳐 줄만한 선생님이 없었다. 그는 늘 혼자 생각에 빠져서 지냈다.

고3 졸업반이 되어 그가 음대를 진학한다고 하자, 선생님은 “음악 시간에 입도 안 벌리던 애가 음악 대학을 가냐” 하고 놀랐다.

어머니는 학비걱정으로 교육대학 진학을 원했지만, 그는 작곡가가 되고 싶은 생각에 고집을 꺾지 않았고 둘째 언니가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서 서울대 음대에 진학했다. 다행히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음대에 다니면서 한동안 다시 방향을 했다.

“1학년 1학기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예고를 나온 친구들이 ‘너는 슈베르트의 무슨 무슨 곡을 들었니? 어느 음악가의 곡을 좋아하니?’ 하고 묻는데, 저는 하나도 들은 게 없고 이름도 처음 듣는 작곡가들도 많아서 기가 죽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어 스스로 외톨이처럼 지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 오케스트라 악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만져 본 악기라곤 피아노밖에 없었어요.”



**윤이상 음악 듣고 독일 유학 결심** 1971년. 박영희에게 잊히지 않는 일이 생긴다. 윤이상(1917~1995)의 음악을 만난 일이다. 그 당시 윤이상은 ‘동베를린 간첩단’<sup>1)</sup>사건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있었다. 1971년에 시민회관에서 윤이상의 음악(예악(禮樂), 원경수 지휘)을 처음 접한 박영희는 음악에 빠져들었다.

“황홀했어요. 음악 자체가 저를 완전히 흔들었어요. 작곡가는 음악을 만들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도 독일로 유학을 해서 저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1973년 박영희는 독일학술교류재단(DAAD)의 장학생시험에 응시해 합격한다. 어머니는 떠나는 그에게 “영희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그러나 엄마 때문에는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는 이유를 만들지 마라”라고 하셨다. 어머니의 이 말은 공부하는 동안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를 지키는 힘이 되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으로 갔다. 그는 공부가 행복했다. 독일 생활이 외롭거나 낯설지도 않았다.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에서 클라우스 후버에게 작곡 전공을, 현대음악분석법은 브라이언 페르니하우에게 배웠고, 음악 이론은 페터 피르티히에게, 피아노는 에디트 피히트 악센펠트에게 공부했다. 1979년부터는 프리랜서 컴퍼니스트로 곡을 써서 작곡료를 받아 생활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20년을 프라이부르크에서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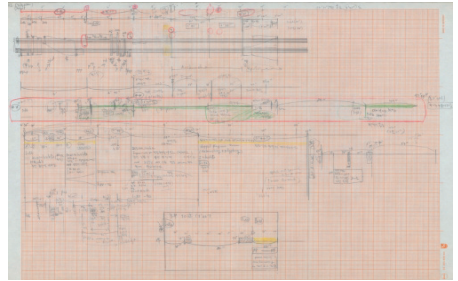
**국제 콩쿠르 1위 휩쓸며 유럽에 알려진 박영희** 1978년 스위스 보스빌에서 열린 국제 작곡제에서 당당히 1등을 하면서 박영희는 유럽의 음악계에 신선하게 얼굴을 알린다. 보스빌 국제콩쿠르는 일종의 신인 발굴을 위한 화려한 등용문 같은 대회로, 음악평론가는 물론 음악 잡지와 음악 출판사, 신문사와 방송국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콩쿠르다. 오직 1등 한 사람만 각광을 받는 대회에서 신인이자, 동양인이자, 여성으로서 최초로 그가 뽑힌 것이다. 그는 이 대회에서 한국어로 「만남(MAN-NAM 클라리넷과 현악 삼중주)」이란 제목을 붙인 곡을 발표했다.

1980년엔 독일 슈투트가르트시가 주최한 작곡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 그리고 도나우에싱겐 현대음악제에 여성 최초로 오케스트라곡 작곡을 위촉받는다. 신인에게 그 큰 음악제의 오케스트라 곡을 위촉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때 쓴 곡이 「소리(SORI)」라는 곡이었다.

1) 동베를린간첩단 사건: 1967년 작곡가 윤이상 화가 이응로 등 예술인과 유학생 등이 간첩 교육을 받으며 대남적화활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윤이상은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국제적 항의와 독일 정부의 도움으로 2년 만에 석방됐다.



▲ 1980년 도나우싱겐 페스티벌에서의 박영희



▲ 창작곡 「소리」 작곡 스케치

도나우에싱겐 현대 음악제는 2023년 102주년이 되는 전통깊은 음악제다. 박영희가 1980년에 초청을 받아 곡을 올렸으니 그 당시로는 한 60년쯤 됐을 것인데, 60년 동안 그 음악제에서 여성 작곡가의 오케스트라 곡이 연주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유럽도 여자 작곡가들에 대한 문턱이 높았다. ‘동양 여자’가 아니라 ‘여자’로서도 그 음악제 역사상 처음이었던 것이다.

### ‘사회참여’의 곡과 ‘한글 제목’ 곡 선봬

그는 사회참여곡을 쓰는 작곡가로도 이름이 높다. 「소리」는 1980년 5월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을 생각하며 목숨을 잃은 영혼들에게 바치는, 마음을 드리는 노래였다. 그 곡이 도나우에싱겐 음악제 무대에서 울려 퍼지게 된 것이다. 유학 중 만나치 저항조직인 ‘하얀장미단’(Weiße Rose 바이세 로제)에 대해 듣고 마음이 아파서 「봉화」라는 곡을 썼다. 1987년엔 한용운 스님의 시를 보고 영감을 얻어 「님」을 썼다. 그는 10년 동안 ‘님’에 대한 곡을 여러 편 썼다.

한편, 그의 곡 제목에는 유독 한글 제목이 많다. 보스빌 작곡제에서 ‘만남’이란 한글 제목을 붙인 이후 많은 곡에 한글 제목을 붙였다. ‘눈’ 그 다음에 ‘노을’, ‘마디’, ‘님’, ‘고운 님’ 그 다음에 ‘내 마음’ 또 그냥 ‘마음’, ‘타령’…….

박영희는 한글 제목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가 지금까지 쓴 곡이 100개가 넘는데 아마 반쯤은 한글 제목일 거예요. 학교 다닐 땐 영어를 배웠는데, 독일 와서는 독일어를 써야 했죠. 그런데 음악 이론과 악보 공부를 하려니까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몇 개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언어는 무엇인가?’ 회의가 일면서 문득 내 나라 언어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큰 한글 사전을 하나 샀지요. 사전을 보면서 한글이 정말 아름다운 언어라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여성 최초’  
수식어가 붙기까지**

그는 여성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 여성이기 때문에 혜택을 입을 생각도 없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실력이 뒤진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여러 곳에서 ‘최초’라는 수식이 붙었다. 그는 많은 여성 선배들이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감옥에도 가고 투쟁하고 싸운 것에 감사한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존중받는 현대 여성들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영희가 브레멘대학교 음대 정교수가 되었을 때는 모두 놀랐다. 유럽에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교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교수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한다. 박영희는 1994년 시험을 거쳐 브레멘 국립예술대학교 정교수로 선임되었다. 독일어권 유럽에서 최초의 여성 정교수였다.

2020년에는 동양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로 ‘베를린 예술대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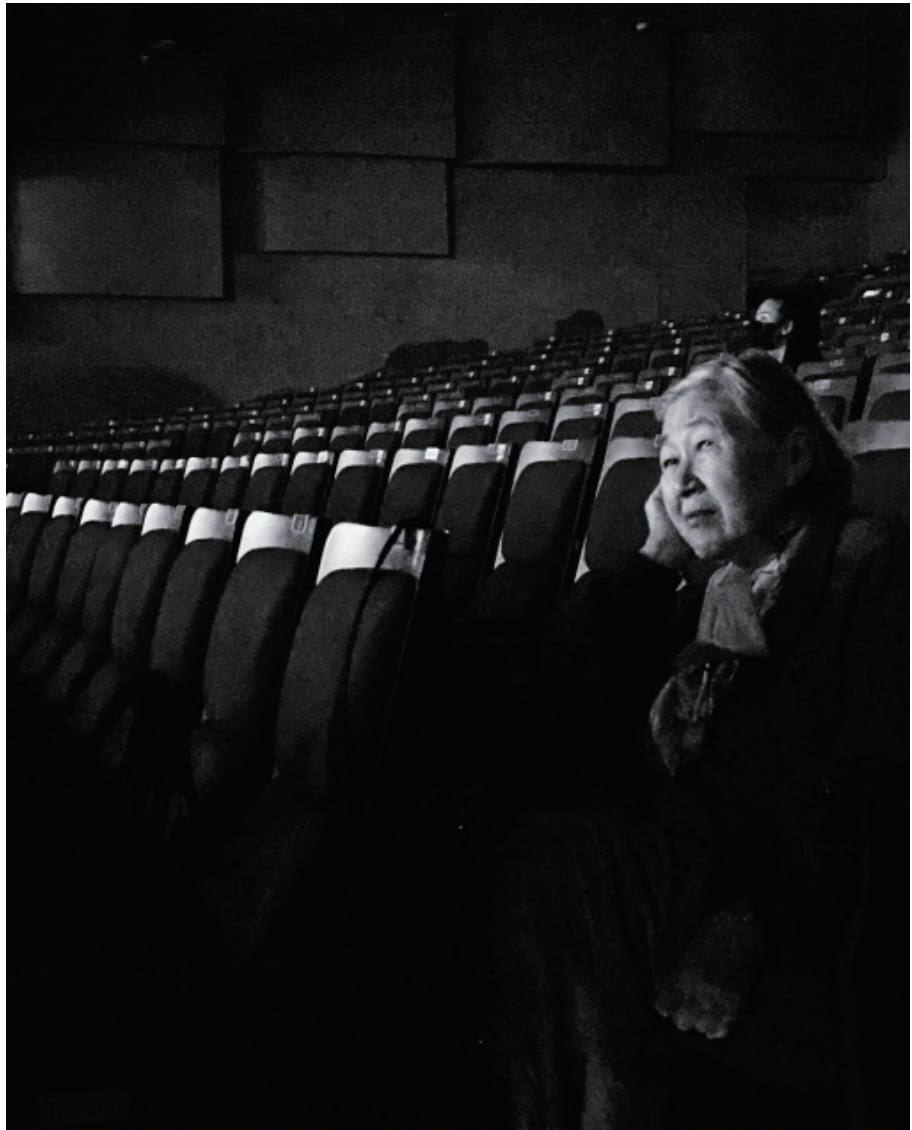
박영희는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보다 ‘나 자신만이 쓸 수 있는 음악언어를 들려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여자니까’라는 편견을 갖지 못하게 했다. 여학생들에게도 스스로를 낮출 필요가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1994년 브레멘 예술대학교의 작곡가 교수가 된 박영희는 학교 안에 현대음악연구소를 만들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게 가능한 것이 독일에서는 한 반에 학생들이 15명 정도라서 소통과 교류가 쉬웠다. 그는 학생들에게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가득 피는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하나, 하나의 꽃들이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의 꽃이고 다른 애들도 꽃이기 때문에 서로 샘을 낼 게 없다. 나도 하나의 꽃이고 너는 또 다른 꽃이다. 우리는 똑같은 개개의 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작곡은 마음의 매듭을 풀어내는 일이라고 말한다. 송강 정철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매듭이 있는데 그 마디를 풀어내는 것이 시인의 일’이라고 그랬듯, 음악도 마음에 있는 매듭들을 풀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듭을 풀기 위해 음악에 매달리고 있다.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까지도 매듭을 풀 듯 풀어내는 것이 음악이지요. 그러한 음악이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앞으로도 제 음악의 본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 자유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작곡가한테는 은퇴라는 말이 없습니다.”

-충북을 빛낸 여성 인물사 '길이 되어 걸어간 여성들' (충북여성재단, 2021)



▲ 박영희(2021. 청주예술의전당)

박영희 약력	
연도	내용
1945	10월26일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181에서 박태진과 김복례의 9남매중 8째로 출생
	청주중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서울대 작곡과와 동대학원 졸업
1974	독일 프라이부르크 음대로 유학
1978	스위스 보스빌 제5회 국제작곡 콩쿠르 1위 (창작곡 'MAN-NAM(클라리넷과 현악 삼중주)')
1979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작곡콩쿠르 1위
1980	독일 슈투트가르트시 주최 국제 작곡 콩쿠르 1위 도나우엔싱겐 현대음악제 초연(오케스트라 곡 '소리(SORI)')
1987	한용운 시 'sla'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님'에 대한 곡을 발표함
1991	오스트리아 그라츠 음악·공연예술 대학교 초빙교수
1992	독일 칼스루에 음악대학교 초빙교수
1994 ~ 2011년	독일 브레멘 예술대학교 작곡과 주임교수, 부총장 대학내 '현대음악연구소' 운영
1995	독일 하이델베르크 여성예술인상(동양인 최초 수상)
2006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
2007	대한민국 문화훈장

2) 베를린 예술대상(Großer Kunstpreis Berlin): 1848년 독일 3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1948년부터 예술인들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 1948~1969년까지 베를린시에서 시상 하였던 이 상은 1971년 이후 독일예술원이 예술가를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음악·순수미술·건축·문학·공연예술·영화 등 6개 부문 중 1개 부문에 대해서만 6년 주기로 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영희 약력	
연도	내용
2008	KBS 해외동포상(문화예술부문)수상
2009	독일 베를린 예술원 회원
2011	브레멘시 예술 및 학술 공로수상
2014	1호 명예통합청주시민
2015	유럽교회음악상 수상
2016	제1회 국제 박영희 작곡상 제정(주 독일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2017	제1회 파안 생명나무작곡가 작곡상(한국작곡가협회) 제11회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 수상
2018	독일작곡가협회, FEM-Nadel상 수상
2019	독일 최고의 ARD음악콩쿠르 타악기 독주 경선지정곡으로 선정
2020	여성최초, 동양인최초로 베를린 예술원 주관 '베를린예술대상'수상
2021	최양업신부탄생 200주년 기념 오페라 '길위의 천국' 한국공연 초연
2022	도나우에싱겐 음악축제 초청, 작곡

▶ 세계현대음악명예의전당 '파울 자허 재단'에 친필악보 영구 보관

# 1300년 전 청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혁연(충북대학교)

1933년 일본 황실의 수장고인 정창원(正倉院)에서 한자와 숫자가 가득 적힌 이상한 고문서가 화엄경전 두루마기 속에서 발견됐다. 정밀 조사를 한 결과, 고문서는 통일신라시대 서원경(현 청주)과 그 주변 3개 촌락의 3년간 인구 동태와 가축 사육, 그리고 과실수 현황 등을 기록한 것이었다.

고문서는 당시 한반도에서 화엄경전이 일본으로 전래될 때, 그 경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포장지였다. 즉 재활용 종이였다. 2매의 고문서는 가로 58cm, 세로 29.6cm의 크기로, 닥종이였다. 신라장적(혹은 신라민정문서)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일본학자 노무라 타다오(野村忠夫)이다. 그는 1953년 '신라민정문서'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 신라장적은 이후 각종 한국사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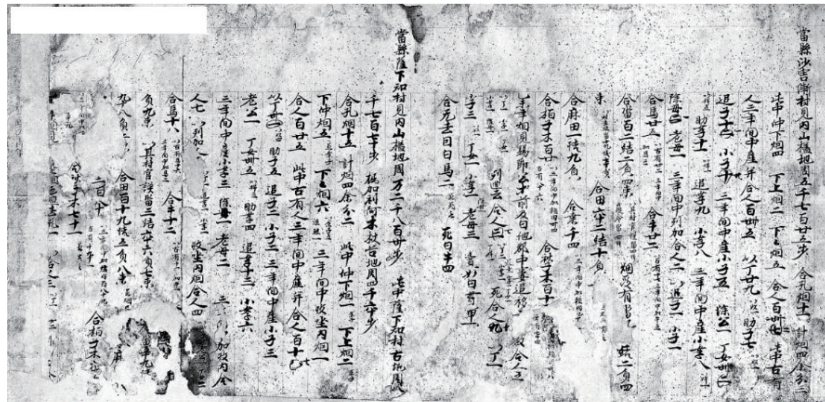
## ‘西原京 ○椒子村’은 초정약수 일대일 가능성

고문서에는 ‘當縣 沙害漸村(당현 사해점촌)’, ‘當縣 薩下知村(당현 살하지촌)’, 그리고 중간자가 탈락한 ‘○○○村’, ‘西原京 ○椒子村(서원경 ○초자촌) 등 4개 촌락명이 등장한다. 서원경이라는 지명이 보임에 따라 지금의 청주를 중심으로 그 주변 3개 촌락의 호구 등을 조사한 고문서임이 확고부동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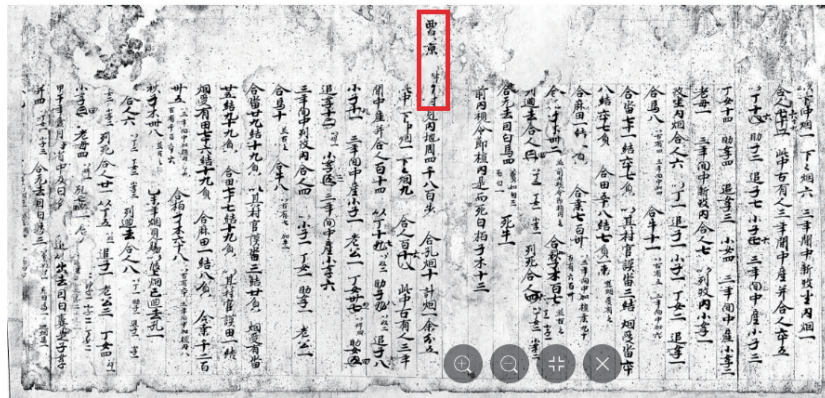
4개 지명과 관련 이인철(전 한남대학교 교수)은 ‘西原京 ○椒子村’의 구체적인 위치를 ‘椒’자가 보이는 점을 들어 지금의 청주시 내수읍 초정약수 일대로 특정했다. 그는 탈락자 ‘○’에 대해서도 초정약수에 ‘교재’(혹은 교자)라는 자연마을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教’자가 유력하다고 추정했다. 나머지 3개 촌락 위치는 아직 정확히 고증되지 않고 있다.



▲ 신라장적 4개 촌락 하나로 '西原京 ○椒子村'으로 추정되는 초정약수 일대 모습. 드론 촬영.



1 면



2 면

▲ 신라장적 1, 2면. '西原京 ○ 椒子村'(사각형) 글자가 보인다.

통일신라시대 촌주(村主)라고 불리는 토착 유력자(有力者)는 세금 부과와 노동력 징발 등을 목적으로 3~4개 촌락의 호구 등을 조사, 중앙 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당시 신라장적 작성자인 촌주는 서원경의 행정 위계가 주변(縣)보다 높은 것을 감안할 때 5소경의 하나인 서원경에 거주하면서 주변 3개 촌락을 조사했을 것이다.

신라장적의 작성 시기와 그것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냐를 둘러싸고는 지명의 위치보다 더 강렬한 논쟁이 일어났고, 일부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신라장적에는 작성 시기를 알리는 간지로 ‘을미년’이 등장한다. 통일신라 시기의 60년 터울 을미년은 695년(효소왕 4), 755년(경덕왕 14), 815년(헌덕왕 7), 875년(헌강왕 1) 등이다.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당시 생활환경 등을 검토, 815년을 신라장적의 유력한 작성 시기로 봤다. 현재는 695년에 작성됐다는 설이 정설로 공고히 굳어졌다. 그 결정적 근거는 의외로 신라장적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 ‘烟’자였다.



**‘烟’자, 의외로  
신라장적 해독의  
열쇳말이 되다**

한자 ‘烟’(연기 연)의 쓰임새를 이해하는 것은 신라장적 내용을 규명하는 첫 번째 열쇳말이 된다. 한국 건축사를 가볍게 예습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구석기인들은 막집이나 동굴, 신석기인은 움집에서 생활했다. 막집은 나뭇가지를 엮기설기 엮어서 막 지은 집을 의미한다. 움집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낮은 구덩이를 파고 지은 원뿔형 집이다. 우리 선조들은 움집에서 힌트를 얻어 겨울철이 다가오면 김장을 한 후 김치독을 땅에 묻었다. 신석기시대 원뿔형 집안에는 난방과 조리용 화덕이 중앙에 위치했다. 청동기시대에는 움집이 사라지고 사각형 지상가옥이 출현했다. 사각의 지상가옥이 등장했다는 것은 벽체와 지붕이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

고고학 발굴 결과, 청동기시대 화덕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대체로 야외 노지(爐址)에서 공동 취사를 했다. 공동 취사 단위는 20명 안팎으로, 소규모 가족 4개의 복합체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협동력을 바탕으로 고인들을 축조하기도 했다.

야외 공동취사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초기 철기시대 사람들은 온돌 기능을 확장해 실내 부뚜막을 만들었고, 이영으로 엮은 초기삼간에서는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烟’자는 굴뚝 연기를 의미하는 한자로, 이때부터 집을 세는 단위로 사용했다. 우리 역사에서 초기삼간은 가장 일반화된 민가로, 집 규모상 굴뚝은 거의 하나만 설치됐다. 중국은 집을 세는 단위를 ‘戶’자를 사용했지만,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성덕왕이 722년 정전제(丁田制)를 실시하기 전까지 ‘烟’자를 사용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와 신라 진흥왕 때 세워진 단양 적성비도 이런 ‘烟’자가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온돌문화가 한반도에만 존재하고 중국 중남부에는 부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중국영화에서 보듯 한족들은 커튼과 ‘炕(炕)’이라 불리는 간이침대 생활을 선호했다.

통일신라시대 신라장적이 작성된 시기는 ‘722년 이전의 을미년’으로 압축됐다. 그것은 695년(효소왕 4)밖에 없다. 효소왕의 외조부는 김흠운(金歆運, ?~655)이다. 김흠운은 우리 고장 영동 조천성(助川城)에서 백제군과 싸우다 전사했고, 신라인은 양산가(陽山歌)를 지어 그를 애도했다.

신라장적 해독의 또 다른 난제는 빈도 높게 등장하는 ‘孔烟(공연)’이라는 단어였다.

**신라장적 해독의 또 다른 난제 ‘孔烟’** 한자 ‘孔’은 구멍 외에 ‘크다’, ‘모이다’ 등의 뜻도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연’을 ‘烟이 모였다’, 즉 ‘모인 烟’으로 해석했다. 난제가 쉽게 해결된 것 같지만 ‘烟’과 그것의 복수인 ‘孔烟’이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숙제였다.

전문가들은 신라장적 발견 초창기에 ‘1공연=1가족’ 개념으로 파악했다. 695년 신라장적 4개 촌락의 전체 인구수는 462명(남자 204명, 여자 258명)명이었고, 전체 공연수는 43이었다. 위 개념을 적용하면 1집에 11명 가량이 사는 셈이 된다. 당시 가족 문화와 수명 등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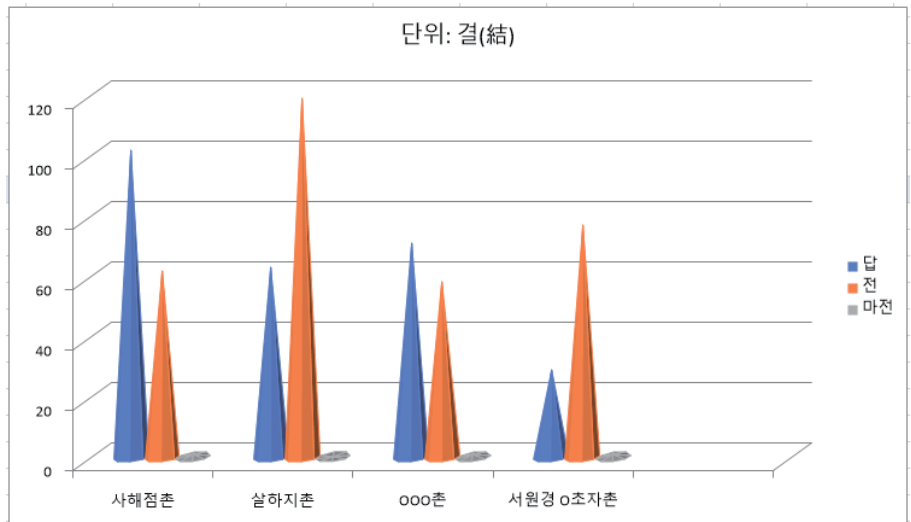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는 1개의 집에 장인, 장모, 처가살이하는 사위, 노비 등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영훈(전 서울대학교 교수)은 이를 세대복합체(household complex)로 정의했다. 1개 공연의 가족수가 상식 이상으로 많았던 이유가 밝혀졌다.

통일신라 정부는 토지의 과다에 따라 공연을 상상연, 상중연, 상하연, 중상연, 중중연, 중하연, 하상연, 하중연, 하하연 등 9등급으로 분류했다. 9등급은 오늘날로 치면 과표에 해당한다.

**신라장적에도 과표와 세율 개념이 존재했다** 당시 정부는 공연 9등급마다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 이른바 ‘計烟’(계연)을 추출했다. 계연은 ‘계산상의 烟’이라는 뜻으로 토지가 많은 촌락에는 고세율, 적은 촌락에는 저세율을 적용했다. 상상연에는 9/6, 상중연에는 8/6, 상하연에는 7/6, 중상연에는 6/6, 중중연에는 5/6, 중하연에는 4/6, 하상연에는 3/6, 하중연에는 2/6, 하하연에는 1/6의 세율을 적용했다.

계연의 수치를 추출하는 공식은 지금과 같은 ‘과표×세율=세액’이었다. 당시에는 세액 자리에 ‘계연수치’가 들어가 있었다.

당시 촌주가 지금의 초정약수 일대로 추정되는 ‘西原京 ○椒子村’을 조사한 결과, 하중연 1개와 하하연 9개로 파악됐다. 9등급 중 8, 9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촌락이 전체적으로 가난했음을 알 수 있다. 두 공연의 계연 수치를 계산하면 하중연은  $1 \times 2/6 = 2/6$ , 하하연은  $9 \times 1/6 = 9/6$ 의 값을 각각 얻을 수 있다. 합하면  $11/6$ , 즉 1과  $5/6$ 가 된다. 당시 신라 조정은 이렇게 얻은 계연수치를 각각의 촌락에 적용, 조(租)·용(庸)·조(調)를 수취했다. 조용조 개념은 중국 수나라 때 창안돼 한반도로 전래됐다. 租(조)는 지금으로 치면 농토세, 庸(용)은 군역·요역 등 노동력 징발, 調(조)는 지역 특산물품을 의미한다. 당시 4개 촌락의 농경지는 밭316결, 논은 266결 규모였다.(농토를 포함한 인구, 소와 말, 유실수의 구체적인 수치는 그래프 참조)



▲ 신라장적의 청주일대 농토

**계연을 기준으로  
조용조를 수취하다**

통일신라 정부는 租를 주로 촌락의 연수유(烟收有) 전답에 부과했다. 연수유는 ‘烟이 받아 가진 전답’이라는 뜻이다.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누군가가 烟에게 전답을 줬고, 烟은 그것을 고맙게 받았다. 이때의 누군가는 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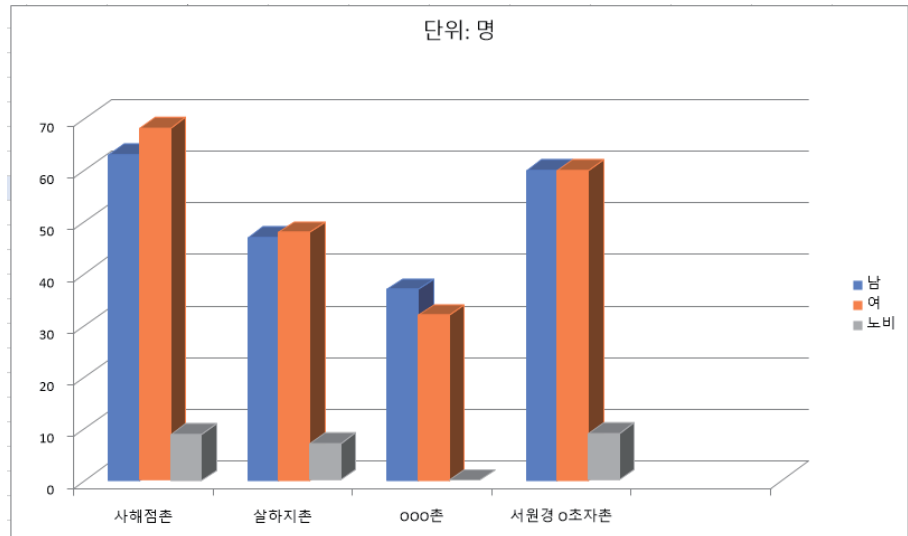
부족국가연맹 단계를 벗어난 한반도의 고대 왕들은 꾸준히 왕권을 강화, 귀족회의 장르급에서 대왕(大王)으로 변모했다. 삼국의 왕은 『시경』에 나오는 ‘넓은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普天之下 莫非王土)’라는 구절을 빌려와 왕토(王土) 사상을 더욱 다졌다. 본래 내(왕) 땅이었던 농토를 당신에게 빌려줬으니 세금을 거둬가야 한다는 논리였다.

연수유 전답은 신라정적 토지 종류의 90% 정도를 차지했다. 신라장적은 부과된 농토세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연수유 전답은 성덕왕이 정전제를 실시하면서 ‘丁田’(정전)으로 바뀌었고, 전술한대로 烟은 중국식 표현인 ‘丁戶’로 변경됐다.

당시 정부는 군역과 요역 등 노동력 징발에 해당하는 庸을 수취하기 위해 남녀 성비, 연령층 등을 조사, 6등급으로 분류했다. 남자의 경우 정(丁), 조자(助子), 추자(追子), 소자(小子), 제공(除公), 노공(老公) 등으로 분류했다. 전문가들은 정은 16~57세, 조자는 13~15세, 추자는 10~12세, 소자는 9세 이하, 제공은 58~59세, 노공은 60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자도 6등급 나이 분류는 같고 명칭만 다르다.

**성인 남자 인구가  
여자보다 크게  
적었던 배경은**

전술한대로 서원경 일대 4개 촌락의 695년 총인구는 462명이었다, 이는 3년 전인 692년 486명과 비교해 24명이 감소한 수치다. 특이한 것은 695년의 남녀 성비가 비정상적인 분포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해 성비는 남자 204명(44%), 여자 258명(56%)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4명이나 많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여자가 무려 12%나 많았다.



▲ 신라장적의 청주일대 인구

이영훈은 그 배경을 신라와 당나라의 나당전쟁(670~676)에서 찾았다. 김춘추(金春秋, 654~661)와 당태종은 나당연합군을 결성키로 하고,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면 대동강~원산만을 두 나라의 국경으로 하자고 합의했다.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태도가 돌변, 한반도 전역을 집어삼키려 했다.

7년 동안 지금의 경기도 지역과 서원경에 가까운 금강하구 일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쌍방간에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끝에 신라가 기벌포(금강하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당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이영훈은 이때 서원경 일대의 4개 촌락 장정들도 징집을 당했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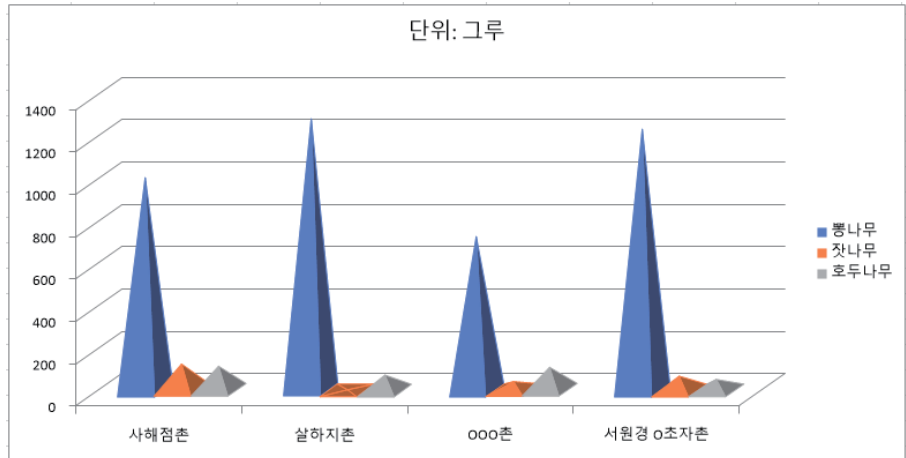
15세 이하의 남녀 성비는 정상에 가까웠다. 서원경 ○椒子村은 남자 27명, 여자 24명으로 되레 남자가 많았다. 청주일대 4개 촌락의 이들 연령층은 나당전쟁이 끝난 뒤 태어난 세대들이다. 서원경 일대의 4개 촌락은 대규모 국제전쟁을 치룬 후 안정과 번영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4개 촌락의 60세 이상 인구는 남자 2명, 여성 4명 등 6명으로, 전체인구의 1.2%에 불과했다. 당시 사람들은 수명이 길지 못했다. 서원경 4개 촌락의 노비는 총 25명으로 전체인구의 5.4% 정도였다. 적은 수치로, 우리나라 노비인구는

조선시대들어 폭증했다. 조선 정부가 ‘부모가 한쪽만 천해도 그 자식은 천민이다’라는 일천즉천(一賤則賤)을 묵인하자 양반들은 남자종을 이용해 엄청나게 재산(노비)을 증식했다.

**비단과 베를  
공동 길쌈하다**

당시 촌주는 뽕나무, 유실수(잣, 가래나무) 등도 조사했다. 가래나무는 호두나무를 말한다. 조용조 가운데 ‘調’(조)를 수취하기 위함이었다. 調는 지역 특산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리 공물(貢物)이라고 불렀다. 당시 4개 촌락에는 총 4천2백49그루의 뽕나무가 심겨 있었다. 이 규모의 뽕나무 밭은 자연 식생을 넘어 과원(果園)처럼 인위적인 경영을 의미한다.



▲ 신라장적의 청주일대 유실수

서원경 일대 사람들이 촌락별로 뽕나무를 대규모로 키운 것은 비단 옷감을 만들어 앞서 언급한 계연수치에 맞춰 경주 왕실에 바치기[貢] 위함이었다. 촌락별로 옷감을 만들었다는 것은 촌민들이 공동 길쌈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복의 밀감이 되는 옷감은 길이가 길어야 이불, 저고리, 바지 등을 원하는 대로 재단할 수 있다. 신라인들은 촌락별 공동 길쌈을 ‘가배’(嘉俳)라고 불렀고, 이것은 가뵤-가외-가위 순으로 변하면서 ‘한가위’(추석)의 어원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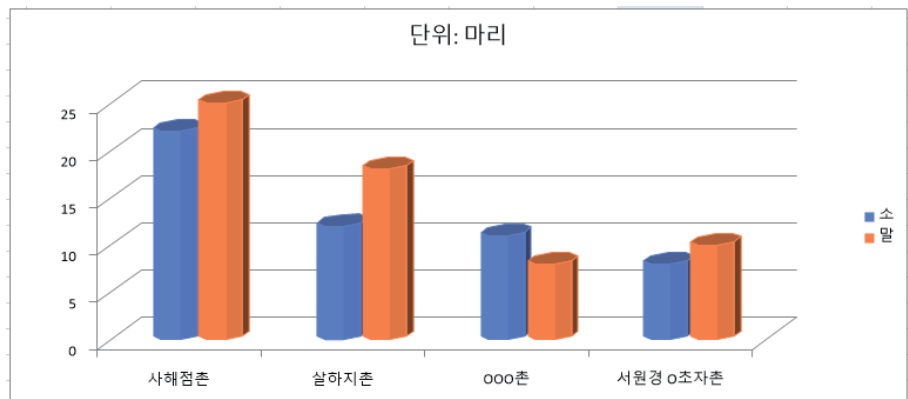
9년 왕이 6부를 정하고서는 절반씩으로 나누어 두 부류로 삼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조직하게 하였는데, 가을 7월 열엿새부터 매일 아침 일찍 큰 부(部)의 뜰에 모여서 길쌈을 하게 하여 밤 10시경에 그치게 하였다. 그러고는 8월 15일에 이르러 그 성과의 다소를 살피, 진 쪽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이긴 쪽에 사례하였다. 이렇게 하고서 가무와 온갖 놀이를 행하였는데, 그것을 가배라고 불렀다.

-『삼국사기』신라본기, 유리 이사금-

4개 촌락은 총 4결 7부의 마전(麻田)을 공동으로 경작했다. 촌락민들은 수확한 마를 가지고 베를 공동으로 만들었고, 역시 이를 계연수치만큼 경주 왕실에 공납했다. 결부제는 토지면적과 수확량을 함께 계산한 것으로, ‘마지기’ 개념과 같다. 과거 충북에서는 1마지기를 2백 평이라고 했으나 척박한 강원도는 3백 평이었다. 그래야 수확량이 같다는 의미다. 1결은 대체로 3천 평 안팎이었다.

**신라장적 조세정신,  
세종 토지공법으로  
이어지다**

4개 촌락 주민들은 소와 말도 많이 사육했다. 소는 총 53마리, 말은 총 61마리를 사육했다. 통일신라시대는 축력(畜力)을 이용한 농업이 더욱 발달했다. 촌락민들은 여전히 휴한농업을 했으나, 소를 이용해 심경(깊이갈이)을 했다. 휴한농법은 지력(地力) 회복을 위해 한 해 걸러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말 사육 수가 의외로 많은 것은 나라의 요구에 의해 군마(軍馬)를 많이 길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신라장적의 청주일대 소와 말

4개 촌락의 하나로 여겨지는 초정약수 일대는 조선시대 세종이 토지공법 완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곳이다. 국사 시간에 자주 접하는 토지공법은 토지 비옥도에 따라 전분6등법, 그해 풍흉에 따라 연분9등법으로 분류했다. 이때의 연분9등법이 신라장적에 등장하는 9단계(9/6~1/6) 세율과 같다. 신라장적의 조세 정신이 의도했든

안 했든 조선 세종의 토지공법으로도 이어진 것이다. 세종은 1444년 초정약수를 두 차례 방문해 상반기에는 훈민정음 정리 작업, 하반기에는 토지공법 완성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 **안정과 번영의 기운이 솟아오르다**

이상에서 보듯 1300년 전 작성된 신라장적을 통해 당시 청주일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흐릿하게나마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조·용·조라는 국가 행정력에 포섭돼 농지세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했고, 군역과 요역 등 노동력 징발도 피할 수 없었다. 비단, 베, 잣, 호두 등 지역 특산물품도 촌주가 촌락 단위로 조사한 과표와 세율대로 어김없이 중앙 정부에 바쳐야 했다.

그들은 부뚜막과 온돌을 갖춘 초가삼간에서 의식주 생활을 했지만, 가난한 편이었고 수명은 60살을 넘기가 힘들었다. 가족은 직접적인 혈연 외에 노비, 처가살이하는 사위, 처족의 일부 등도 동거하는 이른바 세대 복합체 형태를 나타냈고, 이것은 부세(賦稅)의 기준이 됐다.

당시는 퇴비법이 발달하지 않으면서 연작상경을 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한 해 거른 농토를 축력과 쟁기를 이용해 깊이갈이를 했다. 그들은 말도 많이 사육했지만 자기 소유는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요구에 따른 대리 사육 군마였다.

당시 청주 일대의 장정(16~57세 남성)들은 나당전쟁 때 많이 징집돼 성비가 44%대 56%가 될 정도로 많이 희생됐다. 그후 태어난 세대는 정상적인 남녀 성비를 회복했고, 1300년 전의 청주지역 먼동으로는 서서히 안정과 번영의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 안승각, 충북 현대미술의 징검다리

김기현(미술칼럼니스트)

## 해방공간의 혼란과 예술가들의 월북

김복진과 김주경 충북 미술인 둘이 떠났다. 떠난 빈자리는 또 누군가로 채워진다. 지역의 문화예술도 빈자리는 다음 세대의 예술가로 채워지며 그 예술지형은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해 성장한다. 동시대를 살아온 화가들에게도 표현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한 번도 미술문화의 빈자리가 오래 지속된 적이 없는 듯하다. 조각가 김복진은 마흔에 오르지 못하고 요절했고 김주경은 북으로 떠났다. 김복진과 김주경의 미술이 충북에서 근대미술에 뿌리내리거나 지역의 미술시대를 연결하는 계보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그들을 ‘충북의 미술인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에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려운, 피란과 유목 같은 생활이 남한 사회 미술환경을 그렇게 만들었다. 남에서 북으로의 이동과 북에서 남으로의 정착이나, 지역에서 중앙이라는 서울로의 이동은 한국 미술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은 어느 지역이나 유사한 환경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근대 미술은 지역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도 했다. 지역에서 미술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자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역에 남아있는 예술가에게는 편치 않은 이동수단이 미술문화의 지역 특성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특성은 그 지역의 유형이 되었다. 호남과 영남의 미술이 그랬고 충북 중원의 미술이 그랬다. 충북을 중원미술이라 부르는 이유는 남한강과 금강이 민중의 삶 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남북과 동서 가운데에 위치하여 한반도의 중심 즉, 남북지중 수륙지회의 땅이 충북이고, 중원의 자연스런 고립 상황으로 미술문화가 한 유형으로 변화된 것이 내륙 미술이다.

미술평론가 김종근<sup>1)</sup>은 충북미술을 정의하면서 일단 “무성격의 성격 충북미술”이라 하였다.<sup>2)</sup> 그가 성격을 이야기 하는 것은 김복진과 김주경을 뚜렷한 성향을 가진 작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성격 성격이라는 평가는 두 작가 이후 충북의 미술 경향이 어느 한 부분 두드러짐 없이 시류를 따라 흘러온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충북 미술을 무성격의 성격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특정한 경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화가나 화가 군을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관점에

1) 미술평론가, 1957년 충북 생, 저서 『태고 명화』, 『샤갈 내영혼의 빛깔과 시』, 『빛나는 한국의 화가들』 등.

2) 김종근, 「풍요와 빈곤 속에 선 충북의 미술」, 『서울아트가이드칼럼』, 2016년 3월호.



따라 문제점이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충북 미술은 이념과 문화적 변혁의 시대에서 성장한 특수한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앞서 거론한 충북 출신 두 작가 김복진과 김주경에 의해 충북의 미술은 이념화의 상징이라는 성격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두 작가의 활동이 한국 미술계에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후 충북 지역 미술가들의 활동이 둔화된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평가는 해방공간에서 활동한 충북의 화가들이 열정으로 일구어낸 미술지형과 성격을 현대에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이유와 환경이 있겠지만 다양성의 측면에서 작가 발굴과 지역 화가들의 결집력 부족으로 보아야 한다. 지역을 예로 든다면 호남의 인상주의 화풍이 주류를 이루어 작가 군을 형성하는 데는 오지호라는 걸출한 화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구상미술은 이인성이라는 인물 조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로, 향토적 화풍이라는 지역성을 드러내는 미술을 생산해 냈다. 이 외 권진규의 조각은 아마도 춘천 미술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서양미술 이식사에 비하여 그리 길지 않은 충북의 화단 역시 해방과 전쟁기의 혼란 속에서 태동을 한다. 이 시기는 순수 조형의 유행이 전국적으로 일던 시기이고 우리 지역 출신의 화가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 <눈덮힌 산> 캔버스에 유채, 34cm×28cm, 연대미상.

충북에 근간을 둔 1세대라 화가들은 일본유학과 서울에서의 활동으로 화가의 길을 선택하고 창작에 몰두한다. 하지만 정작 충북의 화단은 화가 부족으로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 충북 1세대 화가들이 남과 북에서 일으킨 미술의 변화는 그들만의 독자적 양식으로 제도미술과 한국 현대 미술화단을 이끌었다. 그러나 국내나 해외 화단에서 명성이 있는 충북 출신 미술인들은 지역의 화단을 형성하는 데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김복진과 김주경 역시 당시의 환경에서 충북 잔류보다 서울을 택하였다. 이들 충북 출신 미술가들은 오히려 전국적인 무대로 활약상을 펼쳐가며 각자 독자적인 양식을 구축해 갔다. 그들이 한국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동안 충북의 미술문화는 더디게 성장하였다.

1세대에게는 그 이름만으로도 처음 내딛는 발걸음의 무거움을 감당하고 어려운 여정을 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고향을 떠난 화가들도 있었지만, 고향을 지킨 화가들도 있고, 출생이나 여타의 맥이 없는 충북에 기반을 이전한 경우도 있다. 직업의 기회가 되어 청주에 삶의 거처를 유지하며 살아온 화가가 있다. 그가 충북의 1세대 화가인 안승각(安承珏) 화백이다.



▲ 안승각 화백

서양화가 안승각 화백은 1908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났다. 연백은 해방 직후 남한 땅이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북에 편입이 되었다. 그는 해주사범학교<sup>3)</sup> 졸업 후 남천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34년 교직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는 일본의 서양미술 교육이 매력적으로 작용했다고 기술했다. 구로다 세이키<sup>4)</sup> 선생이 생존했다면 천재 화가에 대한 신망이 더 두터웠을 것이다. 안승각은 대학 재학 시절 선전에 입선하고 일본 제일미술협회전 특선을 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안승각 화백이 충북과 인연이 된 것은 1943년이다. 청주상업고등학교 메구로 교장이 동경태평양미술학교로 미술교사 추천을 의뢰한다. 동경태평양 미술학교에서는 안승각을 추천했고, 안승각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바로 그해 청주상고로 부임한다. 초등학생 아들 안영일과 생후 3개월의 딸도 함께 귀국하여 청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아무런 연고도 정보도 없는데, 안승각 화백은 어떤 마음으로 청주상고의 초청을 단번에 받아들였을까? 『충청일보』 칼럼 「나의 인생 청풍에서」에 그는 이렇게 썼다.

교사 추천 의뢰서를 보니 비교적 조건이 좋아 지도를 펼쳐 놓고 청주가 어떤 곳인가를 찾아보았다. 강물도 흐르고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데 알맞은 고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귀국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서류를 보내고 나니 속히 청주로 와달라는 전보가 매일 날아들었다.<sup>5)</sup>



▲ 안승각 화백 가족사진

안승각 화백의 청주에 대한 막연한 첫인상은 무심천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있는 작은 도시였다. 하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했다. 강이 있는 작은 도시에서의 낙원 같은 생활과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기대가 현실과는 너무도 달랐다. 교육자로서 교사 생활은 안승각 본인에게나 그의 작업에 많은 도움은 되지 않았다. 식민의 시절,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곳이 아니라 군사용 강제 동원 기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약 2년을 괴산과 경기도 부평으로 학생들을 동원해 노역을 시켜야 했다고 회상한다. 이러한 상황은 물론 청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현실로 제국주의 식민 통치 하의 조선인은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수탈당했던 것이다.

안승각의 황해도 생활과 일본 유학, 청주 정착 시기와 이후의 삶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노역과 같은 노동과 교육을 병행하던 3년여의 청주상업고등학교 교직 생활 중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다. 해방은 소도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안승각과 청주의 미술계에도 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안승각은 청주사범학교 학생들 즉 제자들의 요구로 청주상업고등학교에서 청주사범학교로 학교를 옮기게 된다. 당시 청주사범학교에 재직하던 이시다 선생이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가자 그 자리가 비었던 것이다. 그해가 해방 되던 1945년이다. 5·16 후 청주사범학교는 청주교육대학으로 개편된다. 이때 안승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임용되었고 단계를 거치며 청주교육대학 교수로 근무하게 된다. 어수선한 그해 안승각은 첫 번째 개인 전시를 ‘셋별다방’에서 연다. 이 전시는 안승각이 청주에서 교육자이자 화가로서 지위를 갖기 위한 큰 행보로 보인다. 교육자로서 안승각은 많은 학생들을 서울의 학교로 보내는 역할을 하였고, 제자들은 현재 한국 화단의 최고 작가들이 되었다.

안승각의 교육활동은 제자 미술가의 양산으로 풍요의 시대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작품을 구사하는 충북의 미술가들에 대하여 평론가 김종근은 이렇게 말한다.

- 
- 3) 황해남도 해주시 고등교육기관. 황해남도 중학교 교원양성 사범학교. 1961년 해주사범 전문과 통합 4년제로 됨.
  - 4) 1866년 가고시마 출생. 1924년 사망. 일본의 서양화가, 일본에 서양의 미술이론을 처음으로 소개. 일본 근대미술의 아버지. 한국 유학생을 다수 지도.
  - 5) 안승각, 「나의 인생 청풍에서」, 『충청일보』, 1978. 3.

충북 미술은 김복진의 조각에서 볼 때 선구자적 경향의 현대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유영교의 구상성 그리고 윤형근이나 정창섭 등의 미니멀적 모더니즘은 충북의 출신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진보적 성향 작가들이다. 또한 하동철에게서 발견되는 독자적인 옵티컬이나 변상봉의 상징적 형태의 한국화 작업등에서 다양성 충북 미술을 발견하게 된다. 다양함은 정확한 화파나 유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평론가 김종근이 이야기하는 다양성의 근거는 안승각의 교육철학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청주에서 오래도록 작업을 하고 청주대학교 미술과에서 후학을 가르친 김재관<sup>7)</sup> 화백은 이렇게 회상한다.

안승각 선생이 일본에서 공부한 작품은 ‘외광파 인상주의’ 라고 봐야 해. 정통 인상주의의 화풍이 일본을 통해 유입되는 과정에서 우리식으로 바꾸기도 하지. 그전에 많은 화가들이 있었잖아. 구로다세이키 교수의 지도를 받은 고희동과 같은 부류이지만 현대성을 이미 체험한 분이야. 그래서 안승각 선생의 제자들이 공부하고 활동하던 1940년대는 모더니즘이 대세일 때 추상계열에 심취했다고 보는거야. 안승각 선생은 일본식 외광파의 인상주의에 한국적 인상을 접목한 작업이지만 추상으로의 전조가 있는 거야. 결국 구상미술의 해체는 인상주의의 역할인 것으로 우리도 같은 과정을 가고 있었던거지. 김종근 평론가의 지적이 맞을수도 있어. 안승각 선생이 청주에 계속 머물며 그림을 그리셨다면 청주의 미술은 전국에서 최고의 지위를 얻게 되었을 거야. 아쉬운 부분이지.<sup>8)</sup>

1948년 안승각이 청주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정식 화랑이 없던 터라 화가들이 자주 드나들며 교류하던 셋별다방에서의 전시였다. 안승각의 첫 전시에서는 그가 일본에서 공부한 일본풍의 외광 인상주의 화풍이 소개되었다. 그 후 청주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한 제3회 개인전에서는 비구상 계열 작품을 전시하였다. 안타깝게도 그때의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6) 「풍요와 빈곤 속에 선 충북의 미술」, 『서울아트가이드 칼럼』 2016년 3월호 ‘들어가는 말’ 중에서

7) 1947년 청주생. 청주고 홍익대 미대 학사 석사졸, 홍익대학교 미술학 박사, 현 청주 웨데미미술관 관장.

8) ‘안승각과 충북미술’ 김재관 화백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발췌.



▲ 〈어머니와 아이〉, 캔버스에 유채,  
63.3cm×55.8cm, 연대미상.



▲ 〈바나나가 있는 정물〉,  
45cm×55.8cm, 연대미상.

그가 개인 전시를 준비하며 크게 느낀 것은 청주의 미술환경이 생각 이상으로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그는 화가이자 교육자로서 미술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후진을 양성하여 청주미술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것을 하나의 신념처럼 실행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화가 양성을 위해 대학을 서울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미술반 학생들의 창의성을 촉발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많은 제자들이 유수의 대학에 합격하게 된다. 평론가 김종근이 언급한 충북의 고유성이 다양성으로 변화·발전된 중심에 안승각의 제자 화가들이 있다.

청주미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방향전환이 되는 계기는 안승각과 당시 청주상고 미술교사인 김종현, 그리고 다수의 화가들이 미술가 조직을 만든 일이다. 1962년 충북미술협회 창립이 그것이다. 안승각은 여기서 약 10여 년 동안 회장을 맡아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미술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 미술협회는 회원의 확보와 정기적 회원 전시를 근간으로 지역 미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영비가 필요했다. 일부 회비와 지원금이 전부인 열악한 환경을 학생 사생실기대회로 충원해야만 했다. 충북 전역의 학교를 찾아 협조를 요청하여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여 학생 사생실기대회는 성공한다. 미술사생실기대회는 충북 지역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미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충북·청주 미술 60년을 돌이켜 볼 때 세대마다 화가들은 예술혼 이상으로 지역과 미술을 사랑했다. 하지만 세대를 더해 내려오면서 변화된 충북의 미술계를 볼 때 1세대에 비하여 지금이 더 초라한 성적표라고 한다. 김재관 쉼마미술관장은 충북의 미술환경을 이렇게 회상한다.

충북, 그리고 청주는 내륙으로 고립이 된 지리적 환경이지만 섬으로 고립된 제주와는 양상이 달라. 갇혀있는 내륙이 아닌거지. 청주는 주변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야. 그래서 다변화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풍토의 지역인거야. 고립의 충북이 아닌 지형이다 보니 많은 이들이 청주를 떠나게 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여기 출신 작가들이 서울에서 작품으로 이름을 날리지만 우리지역엔 도움을 주지 못했어. 아쉬운 것이 그분들 중 몇 분만이라도 청주에 있었다면 청주는 많이 달라졌을 거야.<sup>9)</sup>



▲〈피난민〉, 유화, 72.5cm×90.6cm, 1942.  
국립현대 미술관



▲〈황혼의 법주사〉, 90cm×27cm, 1960년대.

문화는 지리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어떤 지역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과 교류하기 어려워 고립되었을 때 그곳의 문화는 정체되기 쉽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역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문화가 자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형성된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일컬어 우리는 그 지역의 문화원형이라고 한다. 이런 시각에서 충북의 문화가 내륙의 고유한 문화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평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러한 원형을 충북의 성격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충북의 미술은 이와 다르다. 충북 미술의 다양성은 지리적 환경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보는 것이다. 충북의 지리적 환경은 단절되고 고립되기보다 오히려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하면서 이질적 문화를 포용하고 다른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근·현대 충북 미술을 외부 미술환경을 수용하고 지역 간 교류의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9) 위의 인터뷰.

교육자로서 안승각 화백은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냈다. 정창섭, 윤형근, 이기원, 박노수 등이 안화백의 제자들이다. 이외에도 직·간접의 영향력은 충북미술을 단단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기창, 김봉구, 임충섭, 김재관, 김경화 등의 충북미술 계보는 충북을 본향으로 화가가 되어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에 살며 오랫동안 작업을 해 온 화가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북의 미술은 건조하다.

60년대 미술의 대중화에 선구적 역할을 한 세대에서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사립 갤러리들은 청주미술, 충북의 화가들에게 큰 희망이자 자부심이었다. 우리는 이시기들을 미술문화가 화려하게 꽃피던 시절로 기억을 한다. 안승각의 미술활동은 그의 창작활동과 조직활동처럼 충북의 미술 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충북에서 미술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은 하나같이 안승각 화백의 청주시절 활동이 이후 충북의 미술계보를 이어가는 구심점이 되는 중심의 역할로 보고 있다. ㉔



▲ 〈눈 덮힌 산 2〉, 유화, 34cm×28cm, 연대미상.



## 충북학연구소 소식

### 2023년 제1차 충북학포럼 개최



충북학연구소에서는 2023년 8월 10일(목) 오후 2시에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3년 1차 충북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발표 100주년을 기념하여 충북학연구소,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1부 순서에서는 충북대학교 박걸순 교수의 ‘의열단창단과 조선혁명선언의 역사적 의의’, 충남대학교 박수연 교수의 ‘선언과 상상의 心城’, 금천중학교 이상규 교사의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독립운동사’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2부 순서에서는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김승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들과 최원영(전 세광고 교장), 김하돈(『단재기행』 저자), 최상돈(청운중 교사), 임기현(충북학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 2023 충북학 기획연구사업 (미호강 명칭 연구) 포럼 개최



충북학연구소는 8월 24일(목) 오후 3시, 충북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미호강 명칭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에서 일제 잔재 논란이 일고 있는 미호강 명칭에 대한 자료 발굴과 고증, 연구성과를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지명학자 박병철 서원대 명예교수가 ‘미호강 명칭에 관한 역사언어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미호강’ 명칭의 언어학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역사학자 박상일 전 청주대 교수가 ‘고문헌을 통해 본 미호강의 명칭’이라는 주제로 고지도 및 고문헌에 나타난 ‘미호강’ 명칭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종합토론에서는 미호강 명칭을 ‘동진강(東津江)’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부 단체 관련자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이외에 역사·언어·지명·고문헌 전문가와 미호강 명칭에 관심을 가진 시민단체 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충북학연구소는 이번 포럼에서 미호강 명칭에 관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논의를 거쳐, 향후 최종 학술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 2023년 “충북학 제25집” 원고모집



충북학연구소에서는 매년 '충북학'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발간 『충북학』 제25집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과 재조명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고를 투고해 주시면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예정입니다.

## 모집정보

모집분야 | 충북관련연구논문 및 비논문원고 모집

## 모집대상

연구자,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인

분야	분량
연구논문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연구논단(논문과 저널의 중간수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저널(문화초점, 인물탐구, 자료소개, 서평 등)	

## 모집일정

원고마감 : 2023년 10월 30일  
 게재심사 : 2023년 11월 15일  
 결과통보 : 2023년 11월 16일  
 발간시기 : 2023년 12월

## 제출방법

이메일접수  
 cbc9236@cri.re.kr  
 문의 | 043) 220-1161~2

- \* 자세한 사항은 충북학연구소로 문의 하십시오.
-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1~2

홈페이지 <http://csi.cri.re.kr>